

중국, 중앙아시아 각국

영구적인 선린우호협력 조약 체결

제 3 회 중국 — 중앙아시아 정상회의
2027 년 중국서

2025년 6월 17일, 국가주석 습근평, 까자흐스탄 대통령 토카예프, 키르기즈스탄 대통령 자파로프, 파키스탄 대통령 라호몬,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 베르디무하메도프, 우즈베키스탄 대통령 미르지요예프는 아스타나에서 제 2차 중국—중앙아시아 정

상회의를 공동으로 거행했다. 중국—중앙아시아기제 회원국 정상은 본 지역의 전략적 의의와 평등, 상호 존중, 호혜상생의 원칙에 기초하여 다자간 협력을 한층 더 심화하는 중요성을 인정하고 6개국 사이의 우호 관계를 계속 공고히 하며 정치적 상호

신뢰를 심화하고 경제협력을 확장할 것이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회의 기간 중국, 까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사이의 영구적인 선린우호협력 조약을 체결했다. 각국은 선린우호와 호혜협력을 전면적으로 강화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근본 리익에 부합되며 본 지역의 평화, 안정 및 발전을 유지하고 전방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것은 각국 인민의 공동 의지와 근본 리익에 부합되는 바 아시아는 물론 세계에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은 <유엔헌장>의 취지와 기타 공인된 국제법 원칙과 규칙을 준수할 것을 재차 강조하고 각국의 법률에 근거하여 각국의 국가 독립, 주권, 영토 완전 및 주권 평등과 국경 불가침의 원칙을 확고히 지지함을 재확인했다. 또한 6개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과 각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 향상에 힘쓰고 인민들의 대대적 우호 관계를 심화하고 계승하기를 원하며 손을 맞잡고 더욱 긴밀한 중국—중앙아시아 운명공동체를 구축하려는 결의를 재확인했다. 각국은 이를 위해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키며 서로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무력으로 위협하지 않으며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재확인했다.

각국은 2027년 중국이 제 3회 중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주최하기로 합의했다.



4월 29일, 사업일군들이 키르기즈스탄 자라라바드지역의 중국—키르기즈스탄—우즈베키스탄 철도 중점통제성 공사 착공 현장에서 바빠 일하고 있다. / 신화넷

1월-5월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수출입 동기 대비 10.4% 증가

해관총서가 15일 발표한 수치에 따르면 올해 들어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간 무역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는데 1월-5월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 수출입 총액은 2,864억 2,000만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10.4% 증가해 동기 대비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중 수출액은 1,881억 8,000만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5.6% 증가하고 수입액은 982억 4,000만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해관 통계에 따르면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간 수출입은 2013년의 3,120억 4,000만 원에서 2024년의 6,741억 5,000만 원으로 확대되어 116% 증가하고 년평균 증가률은 7.3%로 동기 대비 우리 나라 전체 수출입 년평균 증가률보다 2.3%포인트 높았는데 량자간 경제무역 왕래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농업 분야에서 중앙아시아와의 협력 잠재력을 적극 발굴하고 있는바 갈수록 많은 중앙아시아의

육색 량질 농산물이 중국 시장에 진입하고 있다. 올해 1월-5월, 우리 나라가 중앙아시아 5개국으로부터 수입한 농산물은 43억 6,000만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26.9% 증가했다. 그중 까자흐스탄으로부터 수입한 아마씨는 2024년 동기 대비 202.1% 증가하고 우즈베키스탄으로부터 수입한 건포도는 2024년 동기 대비 153.7% 증가했으며 키르기즈스탄으로부터 수입한 벌꿀은 2024년 동기 대비 10.9배 증가했다.

고수준의 상호 연결 네트워크 구축에 힘입어 주변 육로 통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면서 최근 몇년간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간 수출입에서 도로 운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폭 제고되었다. 올해 1월-5월, 도로 운송 방식으로 이루어진 우리 나라와 중앙아시아 5개국간 수출입액은 1,436억 5,000만 원으로 2024년 동기 대비 10.9% 증가했으며 그 점유율은 50% 이상을 유지했다. / 인민넷—조문판

김정은, 로씨야련방 쇼이구 회견



조선중앙통신의 18일 보도에 따르면 조선로동당 총비서이며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은 17일 로씨야련방 안전리사회 서기장 쇼이구를 회견했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조선과 로씨야련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 1년이 되는 뜻깊은 시기에 평양을 찾은 쇼이구를 반갑게 맞이하였다. 쌍방은 회담에서 당면한 협조 사항과 전망계획을 논의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김정은은 “특수 군사작전과 크르스크주의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리해로부터 출발”하여 두 나라간 조약의 범위내에서 조선이 협조할 내용들을 확정하고 관련 계획들을 수락하였으며 필요

한 협력 방안들을 구체적으로 토의하였다. 보도에 따르면 쌍방은 복잡한 국제 및 지역 정세를 비롯하여 호상 관심사로 되는 문제들에 대한 량국 지도부의 견해와 의견들을 폭넓게 교환하였으며 완전한 견해 일치를 이루었다. 김정은은 조선은 로씨야를 “변함없이 무조건적으로 지지할 것”이며 앞으로도 조로간 조약의 조항들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년 6월, 김정은과 로씨야 대통령 푸틴은 평양에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 신화넷

조선중앙통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규탄

16일, 조선중앙통신은 판평원 김형남의 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평한>을 발표했다. 최근 주한미군 사령관 등 미국 고위 인물들은 ‘전략적 유연성’을 운운하며 주한미군의 태세 조정 및 그 역할 확대를 떠들어대고 주한미군을 지역 기동군화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분쟁과 전장에 직접 투입하겠다는 것을 공식화했다. 여기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패권적 지위를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으로 어떻게 하나 지탱해보려는 미국의 전략적 기도가 깔려있다. / 국제방송

권 야망으로 가열된 ‘전략적 유연성’에 시동이 걸리는 순간 동북아시아에 잠재해있는 각이한 충돌 요인들을 발화시키고 거대한 연쇄 폭발을 일으킬 것이다. 미국의 매우 모험적인 패권 추구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파괴하고 전 지구적인 안전 환경을 통해 불능의 파괴적 상황으로 몰아갈 것이다. 판평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미국 현 정부의 출현과 함께 날로 무모해지는 도발적 행태는 조선으로 하여금 압도적이며 공세적인 역제력의 갱신 구축과 강력한 행동적 실행에 힘해야 할 절박성을 부각시켜주고 있다. / 국제방송

이스라엘, 테헤란에 ‘중대’ 공습



6월 17일, 미사일 습격을 받은 이스라엘 중부 도시 헤르즐리아의 한 건물에서 짙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다. / 신화넷



6월 17일, 이스라엘 중부 도시 헤르즐리아에서 한 버스가 미사일 습격으로 파손된 모습. / 신화넷

이스라엘 국방장관 카츠는 17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날 이란의 수도 테헤란에 대해 ‘중대한’ 타격을 발동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국방군은 당일 이스라엘 공군이 이란내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 12 곳을 공습했다고 발표했다. 이스라엘군이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을 향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발사 준비 상황을 감지하고 해당 지역에 공격을 가했다. 또 다른 영상에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중부 이스파한에 위치한 지대공 미사일 발사 장치를 공격하는 모습이 담겨있었다.

이란, ‘징벌적 행동’ 실시 경고

17일, 이란 무장부대 참모총장 압둘라힘 무사비는 이란이 곧 이스라엘에 대한 ‘징벌적 행동’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13일 새벽부터 이란의 여러 지역에 대규모 공습을 가해 이란 핵시설과 군사목표를 폭격하고 많은 인명피해를 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란은 이스라엘내 다양한 목표물에 대해 여러차례 미사일과 무인기 공격을 감행했다.

미국, 중동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 배치

15일,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미국이 현재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행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지만 앞으로 “개입할 수도 있다.”면서 이란에 미국의 목표물을 습격하지 말라고 재차 경고했다. 미국 국방장관 허그세스는 16일 “미국은 중동지역에서의 ‘방어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이 지역에 더 많은 군사력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17일 오후 백악관에서 국가안보팀을 소집하고 이스라엘과 이란간 계속되는 군사충돌을 논의했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에도 “우리의 인내심이 바닥났다.”며 이란에 “무조건적 항복”을 요구하는 글을 수차례 올렸다. / 신화넷

이재명 집권 첫 주 지지율 58.6%



6월 14일, 사람들이 서울 청계천에서 물놀이를 하고 있다. / 신화넷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국 대통령 이재명의 집권 첫 주 지지율은 58.6%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기간 52.1%, 박근혜 전 대통령의 54.8% 보다 높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같은 기간 8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76% 보다는 낮았다. 대통령실의 한 관원은 “이 여론

조사는 내란을 조속히 종식시키고 국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를 바라는 국민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은 겸손한 태도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시정인 전 대통령의 같은 기간 81.6%, 이명박 전 대통령의 76% 보다는 낮았다. 대통령실의 한 관원은 “이 여론

/ 신화넷